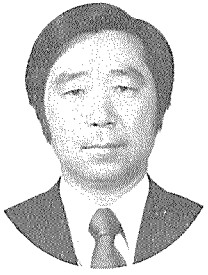
論 壇

이번 제4차 전국장내기생충감염율 실태조사가 바야흐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수준 뿐 아니라 우리국민의 문화적인긍지와 단결심을 함께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부디 온 국민이 합심하고 협조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다시한번 지면을 통해 부탁하고져 한다

제4차 전국장내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에 즈음하여



이 순 형

가령 우리의 살갗에 거머리나 진드기가 붙었다 하자 우리는 이를 보는 즉시 떼어버리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꿈틀대는 거머리보다 더한 기생충은 다만 우리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몸속에 살고 있는 까닭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기생충이 어느 고장에 많이 있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많은 충란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밖으로 배출되는 충란을 찾아내면 어떤 기생충에 걸렸는지 몇마리가 있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기생충에 걸린 사

람이 어느 고장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이와같은 정보를 알아야 기생충퇴치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가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를 검사하기에는 비용과 정력과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00분의 1을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택하여 기생충검사를 실시하면 효율적이다.

우리 국민 모두를 검사하기에는 비용과 정력과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00분의 1을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택하여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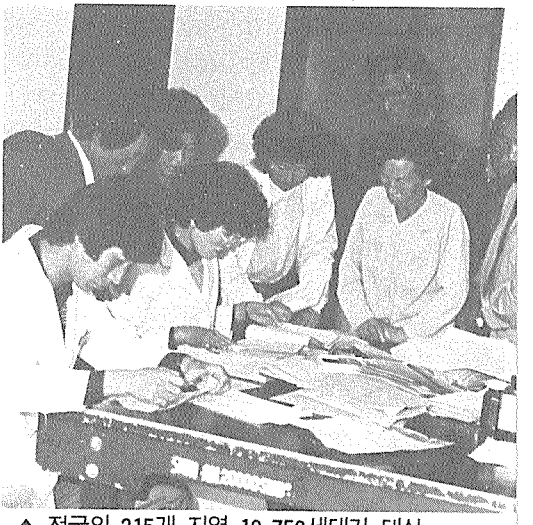
정부와 한국기생충박멸협회(기협)에서 이와같은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를 매 5년 간격으로 실시한지 이제 네번째가 된다. 제 1차 실태조사는 1971년에 실시하였고 제 2차는 1976년에, 그리고 제 3차는 1981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986년 실태조사가 제 4차에 해당된다.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기생충감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하여 기생충의 종별, 감염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파악함으로서 국가 기생충관리사업의 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기생충감염은 원래 빈한하고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 감염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또는 어찌 할바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능력이 없다. 이런 딱한 실정을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 4차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 6천 4백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책정하고,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이 조사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예산속에는 기생충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 즉 기생충감염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선진국의 기술과 원조로 구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얼마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던 점을 생각할때, 우리



▲ 전국의 215개 지역 10,750세대가 대상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과 기술로 이런 대규모 조사사업 및 관리사업을 전개하게 된것이 여간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계획을 살펴보면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표본추출을 위해 선정한 전국의 215개 지역 10,750 세대가 대상이 되며 수검인원은 41,925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 및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국민 다운 자진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작은 일부터 선진대열에 나서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자신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나아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더구나 무료로 치료까지 해준다는데 이를 마다한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선정된 대상자들이 실태조사에서 누락될 경우 이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통계학적 가치는 떨어지고 조사사업은 헛일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선정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만 이 실태조사가 성공을 거둘수 있겠기에 이 글을 통하여 꼭 검사를 받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선정된 지역의 대상자들이 협조하여야 할 일은 간단하다. 각 가구에서 식구대로 대변을 계란만큼 미리 배부되는 비닐봉투에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중 한 어른은 조사원이 묻는 말에 사실 그대로 몇마디 대답만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세차례의 조사에서 밝혀진 일이지만 기생충검사를 위해 대변을 내놓는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제 3 차 조사때에도 가검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산꼭대기에 있는 집을 무려 18번이나 방문한 일이 있었다.

흔히 가검물인 대변의 수집율을 그 국가나 사회의 문명도와 연관시키는 학자들도 있음을 생각할때 위와 같은 사례는 부끄러운 일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제발 문화국민다운 자진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런 작은 일부터 선진 대열에 나서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 나아가 온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더구나 무료로 치료까지 해준다는 데도 이를 마다한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구충을 하지 않을때 그가 배출하는 충란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불씨가 되기때문에 자기 한사람의 건강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실태조사가 갖는 또하나의 큰 의의는 우리나라 기생충감염율의 변동사항을 알자는 것이다. 과거 세차례의 실태조사 성적과 금번 제 4 차검사결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생충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알수 있고 또 그동안 실시해 온 기생

충관리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하는 것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생충관리사업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지난 세차례의 실태조사결과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기생충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본을 따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네차례에 걸친 실태조사의 연속적 결과를 제시하여야만 그 학술적 가치가 빛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생충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아왔고 잃어버린 건강의 값을 학술적가치로 승화, 보상을 받아야만 할것이다. 이일이야 말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공헌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의 큰 뜻은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각종 보건통계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이름과 각종 질환의 감염율과 이환율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선진국 몇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는 공인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생충감염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며 조직적으로 집계된 나라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실태조사결과가 세계보건기구의 회보에 실리게 될때, 비록 우리의 기생충감염율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손 치더라도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수준을 깔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수준으로 미루어 모든 기생충의 관리와 퇴치는 시간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가지 큰 뜻을 가진 제4차 전국기생충감염실태조사가 바야흐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수준 뿐 아니라 우리국민의 문화적인 긍지

▲ 건강의 값을 학술적 가치로 승화, 보상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와 단결심을 함께 자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온 국민이 합심하고 협조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져 한다.

〈필자 =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수 · 의박〉